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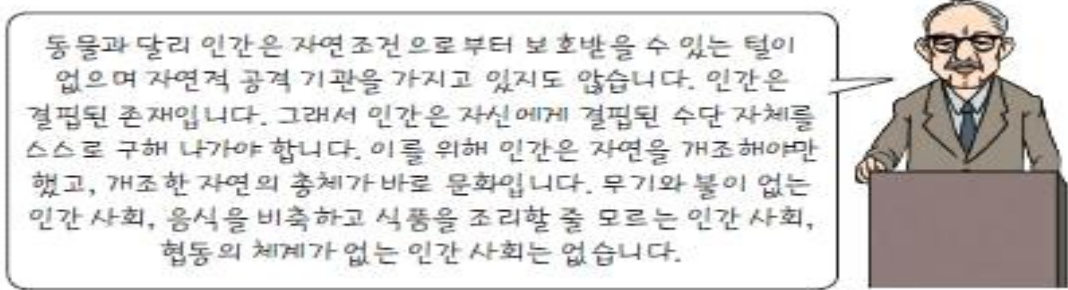
0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을 지니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지를 고민하며,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선택할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삶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①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이다.
- ②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존재이다.
- ③ 공동체를 구성하여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이다.
- ④ 반성적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 ⑤ 구원을 얻기 위해 초월적 절대자에 귀의하는 존재이다.

<풀이1>4번, 제시문은 인간의 특성 중 윤리적 존재에 관한 내용이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 법칙을 만들어 지키며,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 존재이다. 윤리적 존재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에 해당한다. ① 도구적 존재에 관한 설명이다. ② 유희적 존재에 관한 설명이다. ③ 정치적 존재에 관한 설명이다. ⑤ 종교적 존재에 관한 설명이다

02.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인간의 자연적 공격 기관은 동물보다 우월한가?
- ㄴ. 인간은 필요에 따라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가?
- ㄷ. 인간은 고유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인가?
- ㄹ. 인간은 본능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을 개조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풀이2>5번, 그림의 강연자는 독일의 사상가 젤렌으로,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본다. 강연 내용에 따르면 인간이 결핍된 수단을 구하기 위해 자연을 개조한 것이 문화이다(문화적 존재). 또한 인간은 무기와 불 등 필요에 따라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다(도구적 존재). ㄱ. 강연 내용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처럼 자연적 공격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03. ㉠, ㉡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갑 :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을 : 인간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하였고, 하위징아는 ㉡ “인간이나 동물 모두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놀이하는 것’ 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

- | | |
|----------|--------|
| ① 이성적 존재 | 유희적 존재 |
| ② 이성적 존재 | 종교적 존재 |
| ③ 도구적 존재 | 유희적 존재 |
| ④ 도구적 존재 | 종교적 존재 |
| ⑤ 유희적 존재 | 윤리적 존재 |

<풀이3>1번,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보므로 인간의 특성 중 ‘이성적 존재’를 강조하고 있음을, 하위징아는 놀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므로 인간의 특성 중 ‘유희적 존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적 존재는 인간이 초월적이고 무한한 신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도구적 존재는 인간이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특성이 있음을 뜻한다. 윤리적 존재는 인간이 도덕적 자율성을 지녔으며 의식적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는 의미이다.

04.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다운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다.
 -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마음 읽기 능력’ 을 가진 존재라고 보기도 하는데, 마음 읽기 능력은 우리가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존재라는 점을 알려 준다.
 - ‘덜된 놈’ , ‘못된 녀석’ 등의 표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되어 가는 존재’ 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① 의식적으로 행위하며 스스로 가치를 추구한다.
 - ②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한다.
 - ③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 신체적 결점을 보완한다.
 - ④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떠나 삶의 재미를 추구한다.
 - ⑤ 사회적 삶을 통해 삶의 양식과 다양한 가치를 공유한다.

<풀이4>1번, 제시문은 인간의 특성 중 윤리적 존재에 관한 내용이다. 윤리적 존재는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의식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문화적 존재에 관한 설명으로, 인간은 인간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해 나가는 존재이다. ③ 도구적 존재에 관한 설명으로, 인간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이다. ④ 유희적 존재에 관한 설명으로, 인간은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⑤ 사회적 존재에 관한 설명으로, 인간은 여러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05.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 반드시 스승의 규범을 받은 후에 올바르게 되고, 예의를 얻은 후에 잘 다스려진다.</p> <p>을 : 인간의 본성이 선함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다.</p>
(나)	<div> <p>갑 을</p> <p>A B C</p> <p> [범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p> </div>

- <보기>

 - ㄱ. A : 인간의 악한 본성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의 결과이다.
 - ㄴ. B :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후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 ㄷ. B : 인간은 누구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 ㄹ. C :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 수양으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풀이5>1번, 갑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을은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수양의 필요성, 즉 후천적 노력을 강조하였다.ㄷ. 맹자만의 입장이다. 맹자는 인간이 누구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ㄹ. 순자만의 입장이다. 순자는 타고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 맹자의 사단 • 측은지심(惻隱之心) : 불쌍히 여기는 마음 • 수오지심(羞惡之心) : 악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 사양지심(辭讓之心) : 사양하는 마음 • 시비지심(是非之心) :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06.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인의(仁義)란 후천적인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래부터 고유하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인이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드는 것과도 같은데, 버드나무 속에 바구니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나)	

- ① A : 식욕과 성욕이 인간 본성의 전부인가?
 ② A : 인간의 본성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정해지는가?
 ③ B : 타고난 선한 본성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가?
 ④ B : 인간은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타고나는가?
 ⑤ B : 인간의 본성에 선(善)과 불선(不善)의 구분은 없는가?

<풀이6>5번, 같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옳은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수양의 필요성, 즉 후천적 노력을 강조하였다.ㄷ. 맹자만의 입장이다. 맹자는 인간이 누구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ㄹ. 순자만의 입장이다. 순자는 타고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07.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 모두가 옳은 대답을 했을 때, A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삶의 도리인 윤리에 관한 체계적인 생각이다.
 ㄴ. 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한다.
 ㄷ. 개인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탐구하려고 한다.
 ㄹ. 이상 사회의 모습과 실현 방안을 설계하려고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풀이07>2번, A는 윤리 사상이다. 윤리 사상은 인간의 행위 규범이자 삶의 도리인 윤리에 관한 체계적인 사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윤리 사상은 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영역에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려고 한다.ㄴ, ㄹ. 사회사상에 관한 설명이다. 사회사상은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모든 사회의 궁극적 지향점인 이상 사회의 모습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08.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 도(道)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하다. ……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리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p> <p>을 : 성인은 본성을 교화하여 인위[偽]를 일으키고, 예의(禮義)와 법도(法度)를 만들었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두면 사회는 혼란해진다.</p>
(나)	

- ① A : 절대적 진리를 기준으로 만물의 우열을 가려야 하는가?
- ② B : 지속적인 수양으로 본성을 교화해야 하는가?
- ③ B : 마음을 깨끗이 하여 분별적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 ④ C : 예법을 통해 선천적 도덕성을 확충해야 하는가?
- ⑤ C :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후천적 노력이 중요한가?

<풀이08>5번, 갑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 을은 유교 사상가인 순자이다. 순자는 생리적 욕구를 근거로 인간에게 이 기심이 내재해 있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고 교화하려는 후천적 노력을 중시하였다. ① 장자와 순자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순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교화되지 않으면 아름다워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장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장자는 인간의 편협한 관점에서 만물의 미추, 귀천, 시비, 선악 등을 분별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④ 순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순자는 인간을 선천적 도덕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순자의 성악설: • 도지개나 먹줄은 굽은 것을 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임금을 세우고 예(禮)를 밝히는 것은 악한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예는 성인(聖人)이 제정한 것이다. 성인은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 [偽]를 낳고, 인위를 일으켜 예의를 낳고, 예의를 일으켜 제도를 만들었다. • 사람의 본성은 악(惡)하다. 본성이 선(善)해지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서로 싸우고 빼앗아 양보란 없을 것이다.

0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한국 윤리 사상은 우리의 건국 신화, 토속 신앙, ㉠ 풍류도 등의 고유한 정신적 바탕 위에 오래전부터 유입된 ㉡ 유교, ㉢ 불교, ㉣ 도가 사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p>
--

09. ㉠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보기></p> <p>ㄱ. 진리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p> <p>ㄴ. 삼교(三敎)가 전래된 이후에 만들어졌다.</p> <p>ㄷ. 삼교의 가르침과 통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p> <p>ㄹ. 삼교의 가르침을 융합하는 포용의 특징을 지닌다.</p>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풀이09>4번, 풍류도는 삼교가 전래하기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생활 지침으로 삼았던 사상으로, 그 안에 이미 유·불·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풍류도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여러 사상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진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ㄴ. 풍류도는 유·불·도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우리의 고유 사상이다

10.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 :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여 해탈할 것을 강조한다.
- ② ㉡ : 모든 존재에게 자비(慈悲)를 베풀 것을 강조한다.
- ③ ㉢ :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한다.
- ④ ㉣ : 인의(仁義)를 통한 도덕적 인격 수양을 강조한다.
- ⑤ ㉤ : 자기중심적 사고와 편견에서 벗어난 제물을 강조한다.

<풀이10>5번, 도가에서는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며, 자기중심적 사고와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①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것을 제거하면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불교에서는 만물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인식하여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③ 도가에 대한 설명이다. 도가에서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무위자연을 추구한다. ④ 유교에 대한 설명이다. 유교에서는 도덕적 인격 수양을 바탕으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강조한다

11.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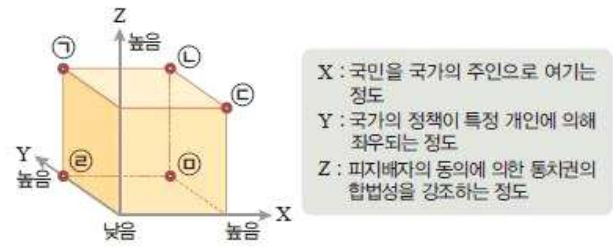


- ① 갑, 을 ② 갑, 무 ③ 병, 무 ④ 갑, 을, 정 ⑤ 을, 병, 정

<풀이11>2번,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른 소득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사회주의는 빈부 격차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을 :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계획 경제를 추구한 것은 사회주의에 해당한다.병 :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지향한 것은 자본주의에 해당한다.정 :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여 생산의 증대를 이루게 한 것은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다

12. A 국가에 비해 B 국가가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A 국가에서는 큰 가뭄으로 100만 명 가량이 식량난으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같은 가뭄을 경험한 B 국가에서는 식량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었다. 이들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사상가 아마르티아 센은 A 국가는 군부 독재 국가였던 반면, B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였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풀이12>3번, A는 군부 독재 국가이고, B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며, 정치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또한 통치권은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합법적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독재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 국가가 갖는 상대적인 특징은 X는 높음, Y는 낮음, Z는 높음에 해당한다

13.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특정한 (㉠)을/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근대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봉건 사회의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사회주의는 빈부 격차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동양의 민본주의는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민심을 존중하는 도덕적 정치가 실현되게 하였다.

- ① 현재 운용하는 사회 체제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②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④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
 ⑤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보다 개인의 도덕적 삶에 초점을 둔다.

<풀이13>5번, ㉥은 사회사상이다. 일반적으로 윤리 사상은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탐구하고,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탐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리 사상은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회사상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이나 가치 등에 초점을 맞춘다. ⑤ 윤리 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14.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 ㉧에 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가가 훌륭해지는 것은 행운의 소관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들은 모두 국정에 참여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찰해 봐야 한다.
(나)	㉦ 윤리 사상은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며, 어떤 행위가 옳은가를 탐구한다. 한편 ㉧ 사회사상은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며,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 ① ㉦과 ㉧은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② ㉦과 ㉧은 고유한 독립된 영역이 없다.
 ③ ㉦과 달리 ㉧은 개인의 인격적 탁월함을 강조한다.
 ④ ㉧과 달리 ㉦은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을 요구한다.
 ⑤ ㉧의 목표는 ㉦의 목표가 달성되면 자동으로 실현된다.

<풀이14>1번, ㉠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국가는 덕을 갖춘 훌륭한 시민들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윤리학과 정치학의 상호 연관성·의존성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② 윤리 사상은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탐구하며 개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사상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탐구하며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집단의 윤리나 규범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서로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한다. ③ 윤리 사상은 개인의 인격적 탁월함을 강조한다. ④ 사회사상은 국정에 부응하는 시민을 요구한다. ⑤ 훌륭한 사람의 덕을 갖추어도 훌륭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시민의 덕 역시 갖추어야 한다.

15.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갑, 을 ② 을, 병 ③ 정, 무 ④ 갑, 병, 정 ⑤ 을, 정, 무

<풀이15>4번, 동양 윤리는 농경 중심 사회에서 발달하였다. 농경은 집단적인 노동력이 필요하며, 자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자연의 운행과 변화 질서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가족을 기초로 형성된 공동체 사회에서 가족 간의 윤리에 주목하며,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하였다. 을 : 서양 윤리의 특징이다. 동양 윤리 사상은 유기체적 자연관을 보여 준다. 무 : 공동체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삶은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이다.

16.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을 지지할 경우 그 논거를 <보기>에 서 고른 것은?

갑 : 천지(天地)와 나는 나란히 생겨나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을 :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 <보기>
 ㄱ. 자연과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
 ㄴ. 자연은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
 ㄷ. 자연과 공존하며 소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ㄹ. 자연은 인간 도덕규범의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풀이16>2번, 갑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이다. 도가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소박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ㄴ. 서양의 이분법적이고 정복 지향적인 자연관이다.ㄹ. 자연에 대한 유교의 입장이다.

17. 다음은 고대 동양 사상가인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갑 : 인(仁)의 윤리를 바탕으로 인격을 수양해야 합니다. 수양을 통해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성되며, 도덕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p> <p>을 : 아닙니다. 인위적인 도덕규범은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해칠 뿐입니다.</p> <p>갑 : 제 생각에 당신의 주장은 ㉠</p>
--

- ①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 존재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 ② 세계가 살아 있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③ 자연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④ 인위적 제도가 무위자연의 삶을 가르침을 모르고 있습니다.
- ⑤ 인간은 인예(仁禮)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풀이17>5번, 갑은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이고, 을은 도가의 사상가인 노자이다. 공자는 인격 수양을 통해 인(仁)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반면, 노자는 유교의 인위적 가치와 제도가 인간 본래의 본성을 가르친다고 보았으며, 인위적이지 않은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하였다. ①, ②, ③ 도가와 유교의 입장이다. ④ 도가에서는 제도가 무위자연의 삶을 가르친다고 강조한다.

- ▶ 유교 사상가 : 공자, 맹자, 순자 •인(仁)과 예(禮)를 강조함 •도덕적 삶을 추구함
- ▶ 도교 사상가 : 노자, 장자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규범보다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강조함 •소박한 삶(무위자연)을 추구함

18.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인간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노력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듯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나)	<div> <div>(가)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div> <div> <div>출발 조건</div> <div>판단 내용</div> <div>판단 결과</div> <div>판단 방향</div> </div> <div> <div>A</div> <div>아니요</div> <div>B</div> <div>예</div> <div>..... 특징을 가진 입장</div> </div> </div>

- ① A : 자비의 윤리를 제시하는가?
- ② A : 세상을 연기(緣起)적 관점으로 보는가?
- ③ B : 모든 존재는 인과적으로 의존한다고 보는가?
- ④ B : 해탈에서 벗어나 소요(逍遙)를 추구하는가?
- ⑤ B :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는 윤회설을 부정하는가?

<풀이18>3번, (가) 사상가는 불교 사상가인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만물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설을 토대로 괴로움에서 벗어난 경지인 해탈을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② 석가모니는 자비의 윤리와 연기적 관점을 주장하였다. ④ 불교는 해탈을 추구한다. 소요(逍遙)는 도가의 이상적 모습이다. ⑤ 불교는 윤회설을 긍정한다.

- ▶연기 세계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인과적으로 존재함
- ▶해탈 연기를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난 경지

- ▶보살 자비를 실천하여 스스로와 중생을 깨닫게 하는 이상적 인간상
- ▶윤회설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돈다는 의미로, 한 존재가 죽으면 그가 지은 업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끊임 없이 되풀이함을 뜻

1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동양 윤리 사상의 특징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갑 : 인(仁)의 윤리를 바탕으로 인격을 수양해야 합니다. 수양을 통해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성되며, 도덕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을 : 아닙니다. 인위적인 도덕규범은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해칠 뿐입니다.
 갑 : 제 생각에 당신의 주장은 ㉠

특징 \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이분법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다.		√		√	√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본다.			√	√	√
세상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이해한다.	√	√			√
세상 만물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파악한다.	√	√	√	√	

- ㉠ 갑 ㉡ 을 ㉢ 병 ㉣ 정 ㉤ 무

<풀이19>1번, 제시문은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존한다는 개념인 대대(對待)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동양 윤리 사상이 세상을 상호 의존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이해함을 추론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특징 : 이분법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 보는 것은 근대 서양의 자연관이다.

20.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주인공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가’ , ‘무엇을’ , ‘누구에게 베풀었다’ 라는 마음조차 없이, 온전한 자비심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나) 나는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휴식을 즐길 때에도 나는 오직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종종 경쟁에서 이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나는 질문에 쉽사리 그렇다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시간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 ㉠ 탐욕에서 벗어나 소요(逍遙)를 실천하며 살아야 해.
 ㉡ 인위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해.
 ㉢ 대립과 구별을 넘어서 절대적 자유를 추구해야 해.
 ㉣ 인(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해.
 ㉤ 내가 소중하듯 모든 존재가 소중함을 깨달아야 해.

<풀이20>5번, (가)는 동양 윤리 사상인 불교이며, (나)는 성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이다. 불교는 내가 소중하듯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자비를 실천할 것을 주장한다. ㉠, ㉡, ㉢ 도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 유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다.

21. 갑, 을의 입장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인위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연의 관점에서는 만물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열을 따질 수 없습니다.

을 : 인(仁)은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아가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 <보기>

- ㄱ. 갑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강조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이다.
- ㄴ. 갑은 소박한 삶을 강조하며, 그 실현을 위해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제시하였다.
- ㄷ. 을은 자비의 윤리를 강조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이다.
- ㄹ. 을은 수기안인(修己安人)을 강조하며, 군자를 이상적 인간으로 제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풀이21>4번, 갑은 도가 사상가인 노자, 을은 유교 사상가인 공자이다.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윤리를 바탕으로 소박한 삶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 사회로 소국과민을 제시하였다. 반면, 공자는 인(仁)의 윤리를 바탕으로 자기를 수양해 나감과 동시에 타인을 사랑하는(修己安人, 수기안인) 삶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실현하는 이상적 인간을 군자라고 하였다. ㄱ. 갑은 무위자연을 강조한 도가 사상가 노자이다. ㄷ. 을은 인(仁)의 윤리를 강조한 유교 사상가 공자이다.

22.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옛날, 하느님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환인은 환웅의 뜻을 알고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삼위태백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므로, 환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 (나) 진한의 우두머리가 왕을 모시려고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우물가의 알에서 빛나는 몸을 지닌 사내아이가 나왔다. 그러자 새와 짐승이 춤을 추었으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빛나서 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였다. 혁거세는 ‘불구네’ 라고도 하는데 ‘세상을 밝게 다스리는 왕’ 이라는 말이다.

- ① 하늘에 대한 공경 의식을 강조한다.
- ② 천인합일(天人合一) 정신을 부정한다.
- ③ 굿을 통해 내세에서의 안녕을 기원한다.
- ④ 복지 향상을 위한 자연 정복을 장려한다.
- ⑤ 세속적 규범보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

<풀이22>1번, (가)는 고조선의 단군 신화, (나)는 신라의 박혁거세 신화이다. 단군이 하늘의 신인 환웅의 아들이고, 박혁거세의 출생이 하늘과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이 하늘에 기원을 둬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윤리 사상의 특징인 경천(敬天)사상과 천인합일(天人合一) 정신을 찾을 수 있다. ② 천인합일 정신은 한국 윤리 사상의 대표적 특징이다. ③ 무속 신앙의 특징이다. ④ 근대 서양 윤리에서 주장하는 자연관이다. ⑤ 도가의 특징이다.

23. 동양 사상가 갑, 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하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롭게 하기를 바라지, 서로 미워하며 서로 해칠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을 : 눈물을 흘리며 형(刑)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인(仁)이고, 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法)이다. 선왕이 법을 우선하고 눈물에 따르지 않는 것은 인(仁)만으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 ① 갑은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한비자이다.
- ② 갑은 너와 나의 구별 없는 겸애(兼愛)를 제시한다.
- ③ 을은 묵가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묵자이다.
- ④ 을은 통치에 있어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반대한다.
- ⑤ 갑, 을 모두 진(秦)·한(漢)나라 시기에 등장한 사상가들이다.

<풀이23>2번, 갑은 묵가 사상가인 묵자, 을은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이다. 묵자와 한비자 모두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한 제자백가이다. 묵자는 유교의 친친(親親)과 달리 너와 나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兼愛)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한비자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법을 강조하며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에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1.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39 ① 갑은 묵가를 대표하는 묵자이다. ③ 을은 법가를 대표하는 한비자이다. ④ 한비자는 신상필벌을 주장한다. ⑤ 갑, 을 모두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한 사상가이다.

- ▶ 묵가 사상가 : 묵자 • 차별 없는 사랑인 겸애(兼愛)를 제시함 → 유교의 친친 (親親)과 대비되는 사상
- ▶ 법가 사상가 : 한비자 • 이기적 존재를 다스림에 있어 법(法)과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조함

24. 다음 동양 사상가가 제시할 ‘인(仁)’에 관한 견해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그 사람됨이 효(孝)와 제(悌)를 실천하면서도 윗사람에게 덤비는 경우는 드물다. 윗사람에게 덤비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작란(作亂)을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았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세워짐에 도(道)가 생겨난다. 효제(孝悌)는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부모에게 간쟁(諫爭)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몸이 불의(不義)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의를 당해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하가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불의를 당해서는 간쟁하는 것이니,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또한 어찌 효가 되겠는가.

견해 \ 학생	갑	을	병	정	무
외면적 규범으로서 형식화를 경계한다.	√			√	√
분별적이고 단계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	√	√	
충서(忠恕)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		√	√
인위적 가치로서 소박한 본성을 방해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풀이24>2번, 제시문은 『논어』의 효제(孝悌)와 충서(忠恕)에 관한 내용이다. 공자는 인(仁)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덕목으로 효제를,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충서를 강조하였다. 효제는 효도와 우애를 의미하고, 충서(忠恕)에서 충(忠)은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을, 서(恕)는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인(仁)이란 가까운 사람부터 실천하는 분별적이고 단계적인 사랑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견해 : 인(仁)은 예(禮)로써 형식화된다. 네 번째 견해 : 도가의 견해이다.

25.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덕(德)으로 정치할 하는 것은 비유컨대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 못별들이 그를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을 : 아닙니다. 정치할 때 형(刑)으로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엄격한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갑 : 제 생각에 당신의 주장은 ㉠

- ① 사람들이 본래 악한 존재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② 통치는 형벌에만 의지해야 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 ③ 정치에 있어 강제적 법률의 효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 ④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⑤ 진정한 예를 실현하기 위해 극기복례가 불필요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풀이25>4번, 갑은 공자, 을은 한비자이다. 공자는 군주가 강제적인 법률이나 형벌보다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비자는 신상필벌(信賞必罰)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통치를 주장하였다. ① 한비자는 사람들이 악한 존재임을 전제하였다. ② 한비자는 형벌로 통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한비자는 정치에 있어 강제적 법률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⑤ 극기복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자의 사상과 거리가 멀다.

- ▶공자의 정치사상
- 덕치 형벌이 아닌 도덕과 예의를 통한 통치를 강조함
 - 정명 : 신분과 역할에 맞는 의무를 수행해야 함.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 대동 사회 : 공자의 이상 사회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26.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명(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어진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으며,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나)	<div> <div>(가)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div> <div> <div>출발 조건</div> <div>판단 내용</div> <div>판단 결과</div> <div>판단 방향</div> </div> <div> <div>A</div> <div>아니요</div> <div>B</div> <div>예</div> <div>..... 특징을 가진 입장</div> </div> </div>

- ① A :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자세를 간과하는가?
 ② A : 친친(親親)보다 겸애(兼愛)를 중시하는가?
 ③ B :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서 법(法)을 강조하는가?
 ④ B : 직책에 걸맞은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가?
 ⑤ B :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가?

<풀이26>3번, (가) 사상가는 공자이며, 제시문은 정명 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공자는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과 외면적 도덕규범인 예(禮)를 강조하였으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仁)을 실천해야 한다는 친친(親親)을 주장하였다. 또한 통치자에게는 자신의 인격을 먼저 닦아야 한다는 수기안인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인 대동 사회를 지향하였다. ③ 한비자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27. 동양 사상가 갑, 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사람의 본성은 여울물과 같아서 동쪽을 터 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을 터 주면 서쪽으로 흐릅니다. 사람의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구분 지을 수 없음은 여울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을 : 물에 진실로 동서의 구분이 없지만 위아래의 구분도 없다는 뜻입니까? 사람의 본성이 날 때부터 착한 것은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사람이란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없으며 물 또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

- ① 갑은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고자이다.
 ② 갑은 선악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보았다.
 ③ 을은 성악설을 주장한 맹자이다.
 ④ 을은 악한 행동은 본성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다.
 ⑤ 갑, 을 모두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풀이27>1번, 갑은 고자이며, 을은 맹자이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 또는 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성무선악설을 제시하면서 선악은 후천적인 환경과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다. 반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나며, 악한 사람도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이라고 보았다. ② 고자는 선악을 후천적인 결과라고 보았다. ③ 을은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이다. ④ 맹자는 악한 행동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보았다. ⑤ 고자는 성무선악설을,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28.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빠지는 상황을 본다면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해 하는 마음이 일어나 아이를 구하려고 한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칭찬을 바라거나, 비난의 소리가 싫어서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측은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해 하는 마음은 인(仁)의 단서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단서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知)의 단서이다.

- 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있는가?
- ② 사단을 근거로 하여 성선설을 지지하는가?
- ③ 본성을 변화시켜 사단을 확충해야 하는가?
- ④ 구방심을 통해 잃어버린 본심을 찾아야 하는가?
- ⑤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심이 갖춰져 있는가?

<풀이28>3번, 제시문은 맹자의 사단(四端)에 관한 설명이다. 맹자는 사단과 불인인지심을 근거로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과 본심 자체는 선하다고 보며, 구방심과 과욕(寡慾)이라는 수양을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천적 선한 마음인 사단을 자각하고 확충하여 인의예지라는 사덕을 완성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③ 맹자는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선하므로 사단을 확충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을 완성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9.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 사람에게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으니, 사단이 있음에도 스스로 인의(仁義)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다.</p> <p>을 :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며, 이를 좇으므로 쟁탈이 생겨서 사양(辭讓)함이 사라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함이 있으며, 이를 좇으므로 서로를 해쳐서 진실과 믿음이 사라진다.</p>
나)	<div> <div> <div>갑</div> <div>을</div> </div> <div> <div>범례</div> <div>A : 갑만의 입장</div> <div>B : 갑, 을의 공통 입장</div> <div>C : 을만의 입장</div> </div> </div> <p>마.</p>

<보기>

ㄱ. A : 양지와 양능은 후천적으로 타고난다.

ㄴ. A : 집의(集義)를 통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ㄷ. B : 모든 인간은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지니고 있다.

ㄹ. C :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풀이29>3번, 갑은 맹자이고,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불인인지심, 사단, 양지와 양능을 근거로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순자는 인간이 본래 이의를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미워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며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때문에 인위적 규범인 예(禮)를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후천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ㄱ. 맹자는 양지와 양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보았다. ㄴ. 맹자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A에 들어가야 한다.

- ▶ 맹자 : •성선설을 주장함 ← 불인인지심, 사단, 양지, 양능맹자순자 •인의(仁義)를 강조함 •집의(集義),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중시함
- ▶ 순자 : •성악설을 주장함 •예의(禮義)를 강조함 •화성기위(化性起僞)를 중시함 → 후천적인 노력을 강조함

30. 동양 사사가 갑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보았다.
- ② 정명 사상을 비판하며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 ③ 힘으로 인(仁)을 가장한 패도 정치를 비판하였다.
- ④ 백성을 덕으로 다스린다는 왕도 정치를 주장하였다.
- ⑤ 도덕적 마음을 위한 토대로서 경제적 안정을 주장하였다.

<풀이30>2번, 갑은 맹자이다. 맹자가 대답한 내용은 역성혁명에 해당하는데, 이는 공자의 정명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군주가 군주답지 못할 경우 그 군주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기에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맹자는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왕도 정치를 통해 백성을 아끼고 덕으로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민본주의를 중시하였다. 더불어 향산과 향심을 통해 경제적 안정이 도덕적 마음을 위한 토대라고 주장하였다. ② 맹자는 정명 사상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계승하여 역성혁명, 즉 민본주의적 혁명을 주장하였다.

31. 다음 동양 사사가 제시할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지가 합해져야 만물이 생겨나고, 음양이 접촉해야 변화가 일어나며, 본성과 인위가 결합해야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말한다.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으나 만물을 다스릴 수는 없다. 땅은 인간을 싣고 있으나 인간을 다스릴 수는 없다. 인류를 포함한 우주 만물은 성인을 기다린 후에 분별된다.

- ① 하늘과 사람의 일을 구분한다.
- ② 도덕의 근원을 하늘과 결부하여 파악한다.
- ③ 악한 행동을 하면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
- ④ 사람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
- ⑤ 하늘의 운행은 사람의 선악에 영향을 받는다.

<풀이31>1번, 제시문은 순자이다. 순자의 자연관은 천인분이(天人分二)로, 이는 하늘(자연)과 사람의 일이 구별됨을 뜻한다. 즉, 하늘의 운행은 사람의 선악에 따른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에 노력한다면 하늘의 어떤 작용에도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의 근원을 하늘로 보았

던 기존의 자연관에 대비된다. ②, ③, ④, ⑤ 사람의 행위와 하늘의 운행이 영향을 준다고 보는 내용으로 순자의 자연관과 거리가 멀다

32.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p>갑 : 군주가 예를 높이고 현자(賢者)를 존중하면 왕자(王者)가 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霸者)가 된다. 그리고 이익을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위태로워지고, 권모술수를 쓰고 남을 무너뜨리며 음흉한 일을 저지르면 망하게 된다.</p> <p>을 :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다.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에 귀의할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겠느냐?</p>
(나)	

- ① A : 예(禮)를 외면적 도덕규범으로 보는가?
- ② B :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려 하는가?
- ③ B : 타고난 내면의 도덕성을 확충하려 하는가?
- ④ C : 재화에 대한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는가?
- ⑤ C : 형벌보다 도덕과 예의로써 통치해야 한다고 보는가?

<풀이32>3번, 갑은 순자, 을은 공자이다. 순자는 인위로서의 예를 바탕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정치 역시 예(禮)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공자는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으며, 재화에 대한 분배의 형평성 또한 강조하였다. 순자와 공자는 모두 유교 사상가로 예를 외면적 도덕규범으로 바라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 순자는 부정의 대답을, 공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3.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본래 하나의 태극만이 있는데 이것이 만물의 각각에 품수(稟受)되었다. 또 각 만물은 다 하나의 태극을 구비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달과 같다. 달은 하나뿐이지만 강과 호수에서 반사되어 가는 곳마다 보인다. 그러나 달이 나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보기>

ㄱ. 이(理)와 기(氣)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ㄷ. 이(理)는 기(氣)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재료이자 힘이다.

ㄹ. 원리로서의 이(理)와 재료로서의 기(氣)는 서로 뒤섞일 수 없는 관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풀이33>4번, 제시문의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이와 기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지만, 원리로서의 이와 재료로서의 기는 그 역할이 다르기에 서로 뒤섞일 수도 없다. ㄷ. 주희에 따르면 기(氣)는 이(理)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재료이자 힘이다.

34.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지간(天地間)에는 이(理)도 있고 기(氣)도 있다. 이(理)는 형이상의 도(道)이고, 사물을 생성하는 근본이 다. 기(氣)는 형이하의 기(器)이고, 사물을 생성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물이 생성될 때는 반드시 이(理)를 부여받은 뒤에 성(性)이 생기고, 기(氣)를 부여받은 뒤에 형체가 생긴다.

- ① 도심(道心)이 인심(人心)을 잘 통제해야 하는가?
- ② 성(性)이 심(心)과 정(情)을 주재하고 포괄하는가?
- ③ 민본(民本)의 이념 아래 덕치를 구현해야 하는가?
- ④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참된 실천을 할 수 있는가?
- ⑤ 인간의 선한 본성이 곧 우주 만물의 보편적 법칙인가?

<풀이34>2번, 제시문의 사상은 성리학이다. 성리학은 인간의 선천적 선한 본성이 이(理)이며, 이는 우주 만물의 보편적 법칙이라고 본다. 또한 인간의 마음을 인심과 도심으로 구분하였는데, 인심과 도심은 끊임없이 갈등하기에 도심이 인심을 잘 통제해야만 한다. 나아가 도덕적 지식을 먼저 알아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先知後行], 동시에 도덕적 지식의 탐구와 실천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知行並進]. 성리학의 정치사상은 덕치와 예치이며, 이는 수기이안인의 유교 전통을 계승하여 민본과 위민의 이념 아래 구현한 것이다. ② 성리학에서는 마음이 성(性)과 정(情)을 주재하고 포괄한다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을 주장한다.

35.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음으로 자연히 알 수 있다. 아버지를 보면 자연히 효도를 알게 되고, 형을 보면 자연히 공경을 알게 되며, 어린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자연히 측은함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양지(良知)이므로 쓸데없이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 ① 수양을 통해서만 얻는 양지를 실천해야 한다.
- ② 마음 밖에 있는 양지를 자각하고 따라야 한다.
- ③ 성인만이 가진 양지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 ④ 후천적으로 얻은 양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 ⑤ 마음의 사욕을 제거하여 양지를 실천해야 한다.

<풀이35>5번, 제시문은 양명학의 양지에 관한 설명이다. 양지는 누구나 본래부터 갖춘 시비지심과 같은 것으로, 이를 자각하고 그대로 따른다면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다. 즉, 성리학처럼 도덕적 이치를 굳이 학문적으로 깊이 탐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양명학은 공부와 수양이 아니라 마음의 사욕을 극복하여 순선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지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①, ④ 양지는 선천적인 것이다. ② 양지는 마음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③ 인간은 누구나 양지를 본래 지니며, 이를 자각해야 한다.

36.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갑, 을 ② 을, 병 ③ 병, 무 ④ 갑, 병, 정 ⑤ 을, 정, 무

<풀이36>3번, 양명학은 사물에 이(理)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본 성리학과 달리 이(理)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양명학에 따르면 마음이 곧 이치이며, 도덕 법칙은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주체인 인간의 마음이 바르게 작용함으로써만 드러나는 것이다. 갑, 을, 정 : 성리학에 관한 설명이다.

- ▶ 성리학 : • 성즉리(性即理) : 선천적인 인간의 선한 본성이 곧 이치
• 사물에 이(理)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봄 → 격물을 도덕 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설명함
- ▶ 양명학 : • 심즉리(心即理) : 마음이 곧 이치
• 이(理)는 마음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봄 → 격물을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37. ㉠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앓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앓의 완성이다. 예컨대,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뒤에야 음식을 먹을 줄 안다.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의(意)이며 곧 행위의 시작이다. 또 음식 맛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반드시 입안에 넣어 본 뒤에야 알 수 있다. 음식을 먹는 것이 행이고 곧 앓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하나의 앓을 말해도 이미 행함이 저절로 포함되어 있다. 이를 (㉠) (이)라고 한다.

<보기>
ㄱ. 지식의 탐구와 실천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ㄴ. 지(知)와 행(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ㄷ. 지식을 먼저 알아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
ㄹ. 알면서 행하지 앓음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풀이37>2번, ㉠은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지행합일이다. 지행합일은 앓과 행함이 본래 하나라는 의미이다. 양명학에서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행동들을 사사로운 욕심으로 인해 앓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기에 아직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바른답·알찬풀이 11ㄱ. 성리학의 지행병진(知行並進)에 관한 설명이다.ㄷ. 성리학의 선지후행(先知後行)에 관한 설명이다.

39. 갑은 부정의 대답을,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간이 배와 차를 만들기 이전에도 이미 배와 차의 이(理)는 존재했다. 우리는 배와 차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실은 배와 차의 이를 발견하여 그에 따라 사물들을 만든 것이다.
 을 :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 임금에게서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 없다. 모두가 다만 이 마음에 있을 뿐이니, 마음이 곧 이(理)이다.

- ① 지행병진(知行並進)을 인정하는가?
 ②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인가?
 ③ 선지후행(先知後行)의 자세를 강조하는가?
 ④ 모든 이치와 사물은 마음속에 존재하는가?
 ⑤ 욕구를 바로잡아 순전한 본성을 회복해야 하는가?

<풀이39>4번, 갑은 성리학, 을은 양명학의 입장이다. 갑은 배와 차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이전의 이(理)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기에 본래 존재하던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알아낸 것이며 이는 성리학의 격물치지에 해당한다. 반면 을은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를 바탕으로 모든 이치와 사물은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③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⑤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0. 다음 동양 사상가의 이기론과 일치하는 내용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칠정(七情)이 이(理)와 기(氣)를 겸하였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칠정(七情)을 사단(四端)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기(氣)와 칠정(七情)의 관계는 이(理)와 사단(四端)의 관계와 같습니다. 따라서 발현하는 것에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는 모두 가리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주가 되는 것에 따라 나누어 이(理)와 기(氣)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내용 \ 학생	갑	을	병	정	무
모든 존재가 이와 기로 구성된다.	√		√	√	
기에 대한 이의 주재성을 강조한다.		√	√	√	
가치론의 입장에서 이보다 기를 강조한다.	√	√			√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를 좀 더 강조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풀이40>4번, 제시문의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주희의 입장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황은 주희의 이기불상장(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 이기불상리(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중 이기불상장에 좀 더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이황은 기보다 이를 강조하였으며, 기에 대한 이의 주재성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내용 : 이황은 가치론의 입장에서 기(氣)보다 이(理)를 강조하며 이귀기천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 내용 : 이황은 이기불상리보다 이기불상장을 강조하였다.

4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른다는 것은 이(理)를 주로 하려 말하였을 뿐이지, 이가 기를 벗어난 것을 말함이 아니니 그것이 사단(四端)입니다.
 을 : 아닙니다. 사단(四端)도 칠정(七情)과 똑같은 감정에 속하며,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기에 탄것에 불과합니다.
 갑 : 제 생각에 당신의 주장은 ㉠

- ① 칠정이 인간의 감정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 ② 칠정이 이(理)에 근원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③ 사단은 악(惡)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④ 사단이 기(氣)의 발현으로 순선(純善)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⑤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있어서 이(理)의 능동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풀이41>5번,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을 이(理)의 발현으로 순선한 것으로 보았으며, 칠정은 기(氣)의 발현으로 선악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악(惡)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그것에 이가 탄 것으로 보았으며, 사단은 이(理)가 드러난 선한 감정이지만 그 역시 칠정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바른답·알찬풀이 13① 이황과 이이 모두 칠정을 인간의 일반적 감정으로 보았다.성(性)에 대한 이황과 이이의 입장② 이황은 칠정을 기(氣)에 근원한다고 보았다. ③ 이황은 사단은 순선(純善)한 반면, 칠정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④ 이황은 사단을 이(理)의 발현이라고 보았다

- ▶이황 : 이기불상잡의 입장에 주목함 •이귀기천을 주장함 •사단은 이의 발현, 칠정은 기의 발현으로 봄
- ▶이이 : 이기불상리의 입장에 주목함 •이기지묘를 주장함 •사단과 칠정 모두 기의 발현으로 봄

42. 다음 동양 사상가의 이기론과 일치하는 내용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가)	천하에 이(理) 없는 기(氣)는 없고 기(氣) 없는 이(理)는 없습니다.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입니다.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나올 수가 없고, 이가 타지 않는 기는 곧 이욕(利慾)에 빠져서 금수(禽獸)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이치입니다.
(나)	<div> <div>(가)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div> <div> <div>출발 조건</div> <div>판단 내용</div> <div>판단 결과</div> <div>판단 방향</div> </div> <div> <div>A</div> <div>아니요</div> <div>B</div> <div>예</div> <div>..... 특징을 가진 입장</div> </div> </div>

- ① A : 기(氣)만 발한다고 보는가?
- ② A :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고 보는가?
- ③ B :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 ④ B : 기발이이승지(氣發而理乘之)를 주장하는가?
- ⑤ B :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를 주장하는가?
- ⑤ 한라산 침엽수림의 분포 한계선이 낮아진다.

<풀이42>2번, ㉠은 이황의 주장이다. 이황은 ‘기’보다 ‘이’를 강조하고, 이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이기호발을 주장하였다.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② 이황은 이귀기천을 주장하였으므로 이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43.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자가 ‘이(理)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창조 능력도 없다.’ 고 말한 것은 이의 본연의 체(體)를 말한 것이며, ‘그것 [理]이 때에 따라 발현하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 고 말한 것은 이의 지극히 신묘한 생성 작용을 말한 것이다. 본체의 무위(無爲)만을 보고 생성 작용이 드러나는 윤행을 알지 못하여 이를 죽은 물건으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도리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 ①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 모두를 부정한다.
- ② 이기불상리를 부정하고 이기불상잡을 긍정한다.
- ③ 이기불상잡을 부정하고 이기불상리를 긍정한다.
- ④ 이기불상잡보다 이기불상리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 ⑤ 이기불상리보다 이기불상잡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풀이43>5번, 제시문의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이기불상리]는 입장과 이와 기는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이기불상잡]는 입장 모두를 긍정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황은 상대적으로 이기불상잡에 주목하며 기에 대한 이의 주재성을 강조하였다. ①, ②, ③ 이황은 이기불상잡과 이기불상리 모두 긍정한다. ④ 이황은 이기불상리보다 이와 기가 뒤섞이지 않는다는 입장인 이기불상잡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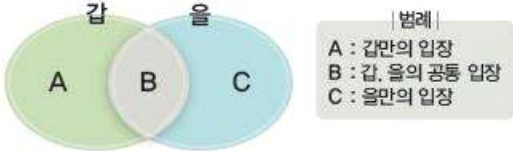
44.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이 학문을 하는 데는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를 막론하고 오직 마땅히 경(敬)으로써 위주로 삼아 동정(動靜) 간에 바름을 잃지 않으면, 의식이 싹트기 전에는 마음의 본체가 텅 비고 밝아 본령(本領)이 깊고도 순수하고, 의식이 발생할 때는 의리가 환히 드러나 물욕(物慾)이 물러가고 혼란스러움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런 능력이 쌓여 성숙함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학문의 중요한 방법이다.

- ① 항시 또렷이 깨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 ② 의식을 집중시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는가?
- ③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 ④ 삶의 원리와 우주 자연의 원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 ⑤ 사단과 칠정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조화시켜야 하는가?

<풀이44> 5번, 제시문의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은 수양의 태도로 경(敬)을 강조하였다. 경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의식을 집중시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항시 또렷이 깨어 있는 것 등이 있다. ⑤ 이황은 이기호발을 통해 사단과 칠정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45.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 사람의 몸은 이(理)와 기(氣)가 합하여 생겨난 까닭에 두 가지가 서로 발하여[互發] 작용하고, 발할 적에 서로 소용되는 것이다.</p> <p>을 :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理)와 기(氣)는 개개 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p>
(나)	

<보기>

ㄱ. A : 사단은 본연지성이 발한 것이다.

ㄴ. B : 칠정은 기질지성이 발한 것이다.

ㄷ. B : 사단은 기질지성이 발한 것이다.

ㄹ. C : 칠정은 본연지성이 발한 것이다.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풀이45>1번,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이가 발한 감정인 사단은 본연지성이 발한 것이고, 기가 발한 감정인 칠정은 기질지성이 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이이는 칠포사, 즉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사단과 칠정 모두 기질지성이 발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ㄷ. 기질지성이 발하여 사단이 된다고 주장한 것은 이이이다. ㄹ. 이황과 이이 모두 칠정은 본연지성이 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칠정은 기질지성이 발한 것이다

▶ 이황: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함 •본연지성(理)이 발함 → 사단 •기질지성(理 + 氣)이 발함 → 칠정
▶ 이이: •성이란 이와 기를 합한 것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별개의 것이 아님 •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있음(형질에 깃들지 않았을 때는 이라고 해야 함

46. ㉠에 들어갈 조선 시대 사상가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理)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고 기(氣)는 그 원리를 담는 그릇이다. 비유한다면 이는 이상이고 기는 이상을 담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나고 할 때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은/는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모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이 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했다. ①

이(理)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기(氣)가 아니면 발할 까닭이 없다.

② 기(氣)는 보편적으로 실재하나, 이(理)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③ 이(理)는 형체와 운동성이 있지만, 기(氣)는 형체도 운동성도 없다.

④ 기(氣)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선함과 악함 등의 차이가 나타난다.

⑤ 기(氣)는 도덕 본성의 근거이며, 이(理)는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운동한다.

<풀이46>4번, ㉠은 이이이다. 이이는 기(氣)의 특수성에 주목하였으며, 기가 모든 차이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이(理)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보편성을 지닌다. 반면 기는 구체적으로 운동하고 변화하기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조건에 따라 특수성을 지닌다. 즉 이는 만물에 통하고 기는 형체에 국한되어 이를 이통기국이라고 한다. ① 이이는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까닭이 없다고 하였다. ② 이이는 이가 보편적으로 실재하고, 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다. ③ 이이에 따르면 기는 형체와 운동성이 있지만, 이는 형체도 운동성도 없다. ⑤ 이이의 입장에서 이는 도덕 본성의 근거이며, 기는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운동한다.

47. 다음 사상가의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는 형이상의 것이요, 기는 형이하의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며, 이미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면 그 발함도 하나이니, 서로 각각 발함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서로 발함이 있다.’ 고 한다면, 이것은 이가 발할 때에 기가 혹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가 발할 때에 이가 혹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이렇다면 이와 기에 떨어짐과 합침이 있고 앞과 뒤가 있는 것이니 그 오류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보기>
ㄱ.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질지성이 발한 감정이다.
ㄴ. 칠정은 이(理)가 발하고 그것에 기(氣)가 탄 것이다.
ㄷ. 본연지성은 기(氣)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理)만을 조명한 것이다.
ㄹ. 본연지성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기질지성만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풀이47>4번, 제시문은 이이의 이기론에 관한 내용이다. 이이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기질

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질지성이 발한 감정이라고 하였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이며, 사단을 포함한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사단과 칠정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처럼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가 맑고 흐린 것에 있다고 하였다.ㄴ. 이이는 칠정은 기가 발하고, 그것에 이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8.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기질이 치우치고 막혀 있는 사물은 더욱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맑고 흐리며, 순수하고 뒤섞인 기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고 밝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을 : 그럼 어떤 수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갑 : _____ ㉠ _____ 이/가 필요합니다.

<보기>

ㄱ. 기질을 바로잡는 교기질(矯氣質)

ㄴ.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는 극기(克己)

ㄷ. 자신의 본성을 직관하는 견성(見性)

ㄹ. 마음에서 인위의 것을 비우는 허정(虛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풀이48>1번, 제시문은 이이의 이기론에 관한 내용이다. 이이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질지성이 발한 감정이라고 하였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이며, 사단을 포함한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사단과 칠정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처럼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가 맑고 흐린 것에 있다고 하였다.ㄴ. 이이는 칠정은 기가 발하고, 그것에 이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9.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제시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 가지 선을 행하면 그 마음이 한가득 즐겁고, 한 가지 악을 행하면 그 마음이 침울하고 답답하다. 내가 선을 행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면 기쁘고, 내가 악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악한다고 비방하면 화가 난다. 이런 것을 보면 선이 기뻐할 만하고 악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선을 보면 따라가 선하다고 하고 타인의 악을 보면 따라가 악하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보면 선은 사모할 만하고 악은 미워할 만한 것임을 알겠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의 기호(嗜好)를 눈앞에서 보여 주는 예들이다.

- ① 형구의 기호는 인간만이 지닌 도덕적 기호이다.
- ② 인간의 본성은 만물의 근본 원리인 이(理)이다.
- ③ 본성은 그저 어떤 것을 지향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다.
- ④ 영지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생리적 기호이다.
- ⑤ 인간은 후천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지향하는 마음을 획득한다.

<풀이49>3번, 제시문은 정약용의 성기호설이다. 정약용은 어떤 것을 지향하는 마음의 경향성, 즉 기호를 본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호에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생리적 기호로서 형구의 기호와 인간만이 지닌 도덕적 기호로서 영지의 기호가 있다. ① 정약용에 따르면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생리적 기호이다. ②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이다. ④ 정약용에 따르면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지닌 도덕적 기호이다. ⑤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 행동을 지향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 ▶인간 기(氣), 생명, 지각 능력, 영지의 기호
- ▶동물 기(氣), 생명, 지각 능력
- ▶식물 기(氣), 생명
- ▶무생물 기(氣)